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YoungSook Lee (Kwonsa)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Genesis 2:4-7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Human as Embodied Soul" Pastor
* Hymn	425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Human as Embodied Soul"

While Genesis 1 depicts the humans as a part of the cosmic story of creation, Genesis 2 focuses primarily on the intimate story of creation of humans in the context of the near surrounding environment. The language and imagery used are now much more personal, articulate and detailed. The generic name of God, Elohim, mentioned throughout Genesis 1 is now substituted with the special, personal (later, covenantal) name of LORD God (Yahweh Elohim) throughout Genesis 2-3. The grand setting of the universe and the earthly realm in Genesis 1 is now replaced with the intimate scene of the Garden of Eden. Moreover, there is now the usage of anthropomorphic expressions to describe God as forming/sculpting man (2:7), breathing into man's nostrils (2:7), and walking in the garden (3:8). It is clear that beginning with Genesis 2:7--"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the creation story has now transitioned into specifically a human history (cf. Gen. 5:1; 10:1; 11:10). According to Genesis 2:7, God's creation of human being involved two-fold action. First, there is the formation of the physical/material body utilizing the "dust of the ground." Second, there is the impartation of the "breath of life" (spiritual element) into the body. As a result, the creature became a living, breathing, animated being. Thus, the human being is basically a bipartite creature, having both body and soul, physical and spiritual dimensions. The human body is comprised of the earthly material and animal traits, while the human soul is endowed directly from God. In other words, we belong both to the earthly realm and heavenly realm, the animal kingdom and God's kingdom. We as human beings are, in essence, "embodied souls" or "inspired bodies." We are, then, meant to develop and utilize both the physical and spiritual faculties in our role as God's stewards of the earthly resources. We as imago Dei are to reflect God's glory in all aspects of being and doing, both physical and spiritual.

Announcements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continue to pray for you.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9:30 am (Room 104) - Spiritual Disciplines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30 pm (Outdoor Cafe) - Youth Bible Study (led by Brother Jimmy Eppley)
- 1:30 pm (Room 902) - Young Adult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 1:00 pm (Room 601) - Adult Bible Study (led by Brother Ranjan)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603 호
유년부	오전 9시	701 호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년 1부	오전 10시	본당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장년 2부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가족부	원일반	오전 10시2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일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세계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훈련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장재원 전도사(교육담당) 구분혜 이진광 고수은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교사 강아곱주현나, 김모세이한나, 김원희동아시야,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혜정, 박젯산,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리요, 조남혜, (영글래디 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인도네시아), 이상식(인도네시아), 이석, 비스타파, 사지, 예누(인도), 정상진홍성인(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제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행영(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멕시코), 김나형·오정녀(케냐), 김종일(멕시코), 허규아(말라위), 김민, 신, 코, 가, 마이, 랄, 사무엘, 레이, 난, 쌍, 싹,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핀, 프르산토, 수레시, 수바스, 이경섭, 알로르, 비사노, 보디소프, 린름, 수만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교,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산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노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은혜의 향기” ("The Fragrance of Grace ")

■ 열 2:1-9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주의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의 길로 나아가갈 것인지, 은혜의 길로 나아가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빛과 어둠 중에 빛을 선택하고, 생명과 사망 중에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의 길로 나아가면, 율법주의만이 풍길 수 있는 악취가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만이 풍길 수 있는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하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율법주의 신앙생활의 악취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따로 구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꼭 이런 우월감으로 인해 구별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위의 차트를 만들어놓고, 지금 자기가 받은 점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절한 무덤 같다.’ 고 말합니다. ‘회절한 무덤’ 은 하얀 회를 칠해 놔서 겉으로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썩어 가는 모든 역겹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 지키지는 못하고, 지키는 척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일 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회가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는 시체 썩는 더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 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2. 은혜의 향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먼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이라고 밝히면서 8절에 다시 한 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사는 모든 인생의 복된 시간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까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란 신앙적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뿜어내는지 모릅니다. 겸손은 한 신안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며 그렇게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고 늘 은혜의 향기를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유문건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20분	박영준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최광성 장로

- 인레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28:8-9...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71(사 55)....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28(28)....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눅 15:11-32...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은혜의 능력... 박노철 목사
- (The Power of Grace)
- * 찬 송Hymn305(405)....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경엽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117:1 인 도 자
- 찬 송 213(348) 다 함 께
- 기 도 임성한 집사
- 성 경 행 20:17-24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나의 달려갈 길 “ 설 교 자
- * 찬 송 505(268)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 I 부 오전 11시
- II 부 오후 7시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 기 도 I부: 합정희 권사 II부: 김찬진 권사
- 성 경 대상 28:4-6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택하신 은혜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
설 교박노철·서준권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박노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임아름	윤주일	가브리엘		임아름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류총기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눅 15:24)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오늘의 성구			
수요 I 부	은 빛	박래경	김현정15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진영	박승기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 제2권사회 직장인 모임 / 2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 이미용봉사(봉천동 동명복지관, 한울 정신지체장애 센터) / 7일(화) 오전 9시 10분 104호
- 정기당회 / 5일(수) 수요일 예배 후 가이오 실
- 스테반 윌레희 및 남산걷기 대회 / 8일(토) 오전10시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장충단 공원
- 남선교회 연합윌레희 / 8일(토) 오후5시 101호
- 전 도 / 2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대치삼성, 도곡레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5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한나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아카데미, 스테반희(한티공원)

6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러키 개포주공,7단지), 래미안 대치 팰리스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8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모세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야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한편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Interpreter : Sarah Kim)

- 세례식 신청 마감 / 10월 세례식이 10월 16일(주일) 1,2,3부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정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 : 10월2일 주일

문답총정리는 10월 9일(주일) 1,2부 예배 후 607호 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0월 9일(주일) 오후 1시 50분 602호 에서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607호 세례교육부)로 문의바랍니다.

뒷면으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민준4	교육2국	고등부	자비팀	윤유진1	교육2국	고등부	본인	강형조	교육2국	고등부	화평팀
박인걸	교육2국	고등부	본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 주중에도 상담 가능 / 주일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 의료 상담 / 최용준(한방과) 주일 오전10시30분 - 오전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 제구실

사람이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리를 잃고 제구실을 하지 못한 분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생과 스승의 자리, 근로자와 경영자의 자리, 백성과 공직자의 자리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 상하의 계급이 있어 구별된 것이 아니고 직분의 성격상 자리를 정한 것이다. 그 자릿값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와 같이 도리어 남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하는 이를 사회는 존경하고 아끼는 것이다.

풍부한 지식과 지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같아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고 거짓 없는 정직한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구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